

##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 성 회(집사, 부천 새롬교회)

떡카페 ‘달나라도끼협동조합’은 부천지역에서 27여년 동안 지역선교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새롬교회(예장통합, 이원돈 목사 시무)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2012년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교회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교육한 결과 탄생한 협동조합이다

물론 협동조합특별법에 의하여 기존의 협동조합들(농협, 신협,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기는 하지만 2011년 12월에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도 12월에는 시행령이 반포되어 5명 이상이 뜻을 모으면 협동조합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2012년도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여서 이런 분위기를 한층 북돋워주었다. 그리하여 2013년 이후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서 가히 협동조합설립 붐이 일어난 상황이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3,466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그 중 3,336개가 수리되었다). 하루 평균 9.5개, 월 평균 288개 꼴로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달나라도끼협동조합도 이런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맺어진 열매이다. 먼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준비위원회(발기인 모임)를 구성하

였다. 준비위원회는 꾸준한 논의 과정을 가지면서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강좌를 개설하였다. 2013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에 강사를 초빙하여 협동조합교육을 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월일	내 용	교재 및 참고문헌	강 사
1	2.26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역사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김신양
2	3. 5	협동조합의 철학과 사상	나락 한알 속의 우주(장일순) 깨어나라 협동조합(김기섭)	김성훈
3	3.12	협동조합의 유형과 사례	해외협동조합 사례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	하승우
4	3.19	주민조직운동과 협동조합	주민조직운동과 협동조합	김성훈
5	3.26	협동조합운동의 7원칙과 협동경영	협동조합운동의 이해와 실제	김성훈
6	4. 2	협동조합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워크숍 방법론	하승우 김성훈 김신양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배우는 것이 좋아 참여하신 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 협동만이 살길이라는 분 등등 참으로 다양한 입장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매주 화요일에 교육하고 설립을 목표로 모임을 지속하였다.

교육을 마친 후 참여한 분들에게 떡카페에 대한 소개와 전망에 대하여 말하였다. 6-8여명의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창립을 목표로 꾸준히 교육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꾸준히 소식을 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뜻이 좋으니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만 모여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을 모르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가게를 얻기 위해 동네의 대로변 쪽으로 나서려면 무조건 2-5천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주어야 하고 그마저도 15평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떡공장과 카페공간이 필요했다 최소한 30평 정도는 필요하였다.

또다시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다 돈도 없고, 조합원도 부족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처음 약정했던 어떤 조합원은 통장으로 입금할 때 원래 약정했던 금액의 3배를 출자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고, 이를 홍보하니 조합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출자액이 늘어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힘입어 준비위원회에서는 “교회여! 지역 사회와 협동하라”는 새롭교회 27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드디어 6월 16일 창립총회를 새롭교회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마침내 2013년 6월 16일 36명의 발기인과 7천여 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창립총회를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축하와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였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달나라토끼협동조합이 정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뜻이 좋아 모이다보니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발생하였다. 단순한 친목회나 동아리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유지해야하는 경제협동사업체라는 현실을 체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미숙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창립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필요하다는 점, 가게를 계약할 때는 우리 사업이 이 건물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살펴보고 건물용도변경 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구청업무(휴게음식점업)와 시청업무(제조판매업등록)를 구분해서 사업신고를 하고 영업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등 경험 부족과 미숙한 일처리로 40여일 정도 서류 때문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우

여곡절을 겪으면서 9월 5일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미리 알고 했으면 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도 결과적으로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고, 조합원간의 교류도 더욱 긴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스토리가 있는 달나라토키협동조합의 창업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의 5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현재 절반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자금부족(33.4%)과 사업모델 구축 미비(22.3%) 등으로 벌써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면서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카톡과 페이스북)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생존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되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생존하지 못한다면 모래성파도 같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매일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없이 찾아오고 그들과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만남과 소통이 있는 제3의 공간으로서의 카페로 변화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매장매출 30%, 회원매출 40%, 지역단체매출 30%를 목표로 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약하지만 관공서의 축제나 행사 때 떡 공급에 대한 의뢰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을 농촌으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잡곡류와 수제치즈, 유정란, 조청 등을 구매해서 매장이용자들에 공급하고 있다. 바쁠 때는 동네 노인 분들에게 손송편 만들기, 팔죽 만들기 등 아르바이트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떡문화화를 확산시키고 매출을 늘리고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떡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협동조합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의 조달이다. 이 문제는 조합원들의 증자나 대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출보다는 조합원들의 증자가 우선인데 그러려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생협은 경우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를 판매하니,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떡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아직 적자이지만 한 1년 정도는 이러한 상태를 감수하고 2년 차에는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고 3년 차부터는 조금씩 흑자를 내는 사업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다.

그래도 매월 10여 명씩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고 떡을 먹어본 분들은 맛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앞으로 홍보하고 조금만 더 애쓰면 분명 안정적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공부한 조합원들이 정말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하려는 달나라토끼협동조합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조합원들 또한 내 가게라는 주인 의식들이 자리잡아가는 실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과연 협동조합은 흑자의 표현대로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때 광풍을 일으켰던 벤처사업 같이 한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일까?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힘입어 급하게 법제화되기는 했지만, 두레, 계, 향약이라는 공동체생활을 해온 우리민족에게는 다시 한 번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1인 1표주의라는 권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느끼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함양되는 성숙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또한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잘 가꾸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할 때이다. 복음은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복음이며 이를 올바르게 전하는 임무를 우리는 완수해야 할 것이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분은 홈페이지 [www.idalnala.com](http://www.idalnala.com)에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란다. ●